

꽃보다 아름다운
할매들의 공동체

‘백석울미마을’

정봉희 _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충남에 ‘꽃보다 할매’가 있다? 지난 2월 KBS 다큐3일 프로그램에
당진 백석울미마을의 할머니들이 출연했을 때, 왠지 모를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균연령 75세의 시골할매들이 사업 시작 3년만에 어떻게 연매출 3억을 넘기고
평균연봉(?) 2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진 것이다.
사실 이 마을은 예전부터 들러보리라 다짐했던 곳이었는데, 마침 팔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원 봄 농활을 겸해 취재할 수 있었다.



백석올미영농조합, 그리고 57명의 대표

지난 5월 현재 이 마을 영농조합원은 57명인데, 이중 남자는 3명 뿐이고, 나머지 54명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81세로 가장 연세가 많은 이계영 할머니부터 50세의 유희숙 막내(?)까지. 그리고 이들 모두가 사장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 조합은 할머니들이 대부분일까? 그건 바로 이 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자1은 김금순 대표의 남편, 남자2는 농장 관리인, 남자3은 귀농인! 끝이다. ^^

조합원의 연봉은 대부분 급여와 농산물판매수익, 그리고 조합수익 배당액을 합산해서 결정된다. 급여의 경우 상시 근무가 월 120만원, 주3회 근무가 월 60만원, 그리고 일당 4만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 1인당 매년 평균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취재를 해보니 올해는 벌써 목표 매출액 4억5천만 원을 넘어설까봐 걱정일 정도라고. 우습게 생각했던 지상과 프로그램의 홍보효과 덕을 톡톡히 본 셈인데, 제품을 만들어낼 농산물이 거의 떨어져버렸다고 한다.

필자가 '그럼 다른 곳에서 재료를 사다가 만들면 안 되느냐?' 했더니 박민영 사무장은 '그건 우리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만 가공·생산한다는 조합

백석올미영농법인
'박민영 사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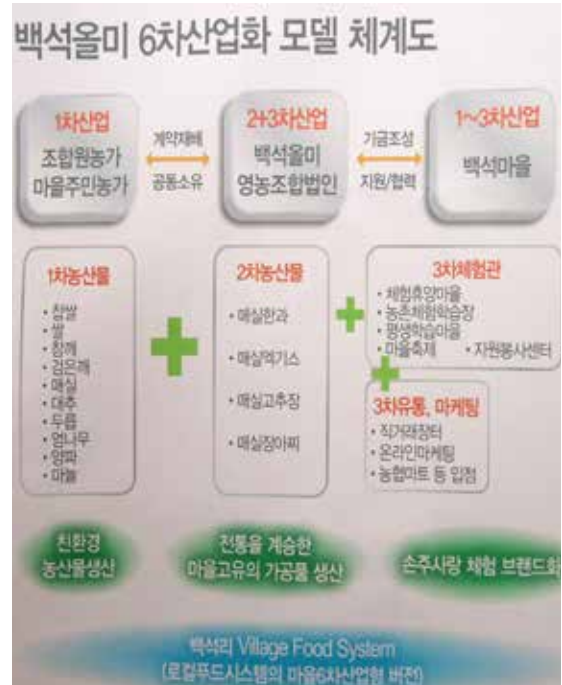
매실한과 등
백석올미영농법인의
가공생산물



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마을 이름 '올미'에 담긴 '최고의 맛을 지향'한다는 맥락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이 아시다시피 이 마을은 농산물의 수확, 가공, 체험 및 관광 등이 결합된 6차 산업화의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시행한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올미마을의 6차산업화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마을 주민과 조합원 농가는 1차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2차는 마을 고유의 전통방식으로 매실한과, 매실엑기스, 매실고추장 등을 가공해 생산한다. 그리고 3차는 체험사업과 직거래장터, 온라인마케팅 등의 브랜드 이미지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백석리 '빌리지 푸드 시스템'이라 불리는 백석올미의 6차 산업화 모델이다.



백석올미의 6차산업화 모델 체계도

할머니들의 반란은 계속된다!

102가구 250명이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마을... 농한기가 되면 집이나 노인정에서 고스톱 치는 게 유일한 재미였던 할머니들은 평생 처음으로 본인 이름이 찍힌 명함을 만들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할머니들이 많아서 일이 어렵거나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김금순 대표는 “이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능동적인

마을주민들의 결속력과 추진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처음 33명으로 시작된 조합원은 지금 5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체험객 수는 1,800명, 매출은 3억5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마을은 체험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할머니와 함께 매실한과 만들기, 비빔밥 만들어 먹기 등 시골고유의 정서가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다목적 실



내·외 체험장, 마을 민박(펜션), 한과공장 및 조청공장 등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올미마을 할머니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웃음과 정겨움이 곧 이 마을의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인 셈이다.

충남연구원이 이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보다 손수 만들어주신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더 가득했다. 아무래도 시골 고향에 늘려온 듯한 친숙함과 포근함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백석올미마을
풍경들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할매들의 공동체

김금순 대표(65)는 7년 전에 이 마을로 귀농해 봉사활동을 하던 중 마을 이장님의 추천으로 공석이던 부녀회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영농법인을 만들게 되었고, 초반에는 비회원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열린

토론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고 오해와 불신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김 대표는 운영자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 기업을 신청하고,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가 하면, 한과제조과정의 기술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비로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임원(대표, 공장장, 총무)들이 관련 전문교육을 배우도록 해 각자 자신들의 제조기법을 고집하는데 따른 불협화음을 없애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할머니들이 단제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70평생 처음 극장체험을 했다는 할머니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노년의 경험을 주민들이 함께 추억



백석올미영농조합
‘김금순 대표’

잘 익어가고 있는 백석올미의 매실





약500년 된 백석올미마을의 회화나무

으로 쌓아가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 마을만의 요양원을 만드는 게 꿈”이라며 “일명 ‘올미 타운’을 지어 나이 들어 힘없고 외로운 할매들이 죽을 때까지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우리 할매들이 매 실처럼 탕글탱글하게 늙지 않고 젊게 사는 이유는 바로 함께 웃으며 바쁘게 일하기 때문이 아닐까”한다며 “지금 각자 살고 있는 집들은 나중에 자손들이나 귀농인들한테 물려주고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삶을 죽을 때까지 어우러져 살 것”이라고 희망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을만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지만, 김금순 대표가 부러워하는 마을도 있었다. 아산외암마을의 훌륭한 어메니티 환경, 학교급식으로 연매출 70억을 올리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자리잡은 흥성거

북이마을 등이라고.

어쨌든 백석올미마을은 ‘노인네들이 더 이상 뭘 하겠어’라는 체념을 ‘우리도 뭔가 꿈을 꿀 수 있어’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아주 가치있는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닛하기 이전에 이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도전을 현실로 바꿔놓은 올미마을 할매들이 너무나 예뻐(?)보였다.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약500년 된 회화나무가 있다. 한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움츠러들고 있었지만 봄이 되자 어김없이 새잎이 돌아나는 생명력도 대단하다. 여기에 마을 할매들의 건강한 웃음꽃이 한 나무 가득하길~ 그래서 이 행복바이러스가 민들레 홀씨처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멀리 퍼져나가길... 